

홍콩 증권선물위원회,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

- 홍콩 증권선물위원회(SFC)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승인*(4.15일)
 - * 가상자산 선물 ETF는 23년 1월에 기승인
 - 가상자산 현물 ETF의 기초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종이며,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는 세계 최초로 승인*
 - * 현물 ETF 승인을 받은 운용사는 ChinaAMC, Bosera Fund, Harvest Global 등 총 3곳으로 각각 2종의 현물 ETF를 승인받음
 - 통상 SFC 승인 이후 홍콩거래소 상장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4월말에는 홍콩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가능 예상
 - 현물 ETF를 승인받은 자산운용사는 ETF 운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전문성을 보유한 디지털 금융사와 협업할 예정
 - 현금으로만 ETF 설정/환매가 가능한 미국과 달리 홍콩의 경우 가상자산 현물로도 설정/환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*
 - *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으로 현물 ETF의 매수 및 환매가 가능함으로써 가상자산 환전 과정을 생략하여 거래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가능
- 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홍콩 정부의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
 - 가상자산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,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경쟁 중인 홍콩은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규제 시스템*을 선제적으로 발표(23.6월)하는 등 가상자산 금융 환경 조성 노력
 - *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,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가이드라인, 징계 과정금 가이드라인 등

작성자 : 홍콩주재원 김민규 차장

□ 홍콩거래소 내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으로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접근성이 향상되고 해외*로부터의 관련 투자자금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

* 한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내 거주자는 투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

○ 중국 정부가 본토에서의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홍콩은 이러한 규제가 배제되어 자율성이 보장된 홍콩 시장으로의 중국 본토 자금 유입 기대

— 다만 중국 정부의 엄격한 가상자산 규제 등으로 본토 자금 유입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

※ 자료협조 : 예탁결제원 홍콩사무소, 삼성증권 홍콩법인